

김 향 희
 건축사사무소 좋은집
 by Kim Hyang-Hee

제10차 전국여성 건축사대회를 마치고

Looking Back on the 10th General Meeting of Women Architects

많은 장맛비가 내릴 거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적당히 흐린 날씨는 이번 행사가 필자에게 주는 의미를 인지하는 듯하다. 불안정한 기류를 타고 시작한 지난 99년 사무소 개설이후 처음 참석하게 된 부산에서의 '제5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는 필자에게 자긍심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울타리를 제공해 준 계기가 되었으며, 길을 잃었을 때 지침이 되는 나침반과도 같았다.

여성건축사회(회장 오경은)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가 올해 들어 10회 째를 맞아 맛과 멋 그리고 소리의 도시 전주에서 개최되었다.

틀게이트를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전주로 향하는 내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 대회 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며 미소짓게 한다. 서울에서 출발한 팀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들과 서로의 안부를 건네고, 이어 도착하는 각 지역의 회원들을 기다리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늘어나는 회원들의 참여가 여성건축사들의 몫이 점차 커지고 있음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 역시 요구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간단하게 행사 일정이 소개되고 늦그릇에 정성스레 담겨진 전주비빔밥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전주에서 1박 2일의 제10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일정은 시작되었다.

지시제 생태공원과 평화 주공단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지시제 생태공원'의 당초 계획은 매립 후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변생활권과 주거지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지시제를 도시민을 위한 수변 레크리에이션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으로 보존하고자 계획을 변경한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장소다.

진입광장은 기존 고목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솟대와 목교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편안함을 주는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 행사와 커뮤니티 공간을 위해 마련된 수변무대는 주제적(Thematic) 성격을 지닌 무대와 저수지 수위 레벨(Level)을 고려한 계단식 좌석배치, 그 사이에 물을 도입해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고리로 사용하고 있는 한편, 용수 공급을 위해 개발되는 지하수를 폭포에서 계류를 따라 흐르도록 해 계류부에 석교 및 자연석 징검다리 등을 조성하는 친수형 놀이공간과 생태학습장까지 조성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수지 분석에 맞춰 다소 상업적 목적에만 치우치는 건축물에 일침을 놓으려는 듯하다.



지시제 생태공원 수변 무대전경

전북 도청사

전체공정의 65% 정도가 진행된 공사현장으로 현재 택지 개발 중인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진행 중인 공사 진척도 및 공사 전반에 걸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현장의 이

모저모를 살펴보고, 도청사를 중심으로 하나, 둘씩 채워질 건축물들이 적절한 어우러짐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주길 바래본다. 여성건축사들의 역량과 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금산사

입구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시간이어서 인지 아니면 오는 듯 마는 듯 내려지는 보슬비의 영향인지 고즈넉한 느낌과 함께 경건함마저 들게 한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듯 걸어가는데 우리들에게 산사는 바람소리를 곁들인 속삭임으로 우리를 반기는 듯 하다.

작은 사찰일거라는 편견을 갖고 만난 금산사는 모악산 도립공원 입구에 우뚝 서 있는 백제 법왕원년(599)에 창건된 대가람의 면모를 갖춘 사찰로 부처님의 전신사리가 모셔진 탑이 능선 위 제일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어 일반 사찰과는 다른 가람의 배치를 보여준다.

국보 제62호로 지정된 미륵전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삼층 목조법당으로 그 내부가 통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 옥내 입불로서 세계 최대라고 하는 11.8m의 미륵불상이 모셔져 있다.

저녁식사를 위해 찾아간 한정식 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7자 형식의 주택에 놓여진 마당과 토담, 그 위에 올

려진 흰색의 고무신이었다. 얼른 신어보고 싶은 충동과 함께 아련히 떠오르는 할머니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알맞은 스케일의 공간과 정성스럽게 올라온 밥상을 승봉으로 마무리한 다음, 상을 물린 채 그 자리에 벌렁 드러눕고 싶은 충동은 어딘지 모르게 잠재된 우리네 건축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이 아닐는지...

숙소에 도착해 이어진 정기총회는 늦은 9시에 시작돼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다.

전·현직 회장님(문숙경·오경은)과 여성건축가협회 회장님(박연심)의 격려사가 주고자한 메시지는 하나같이 어려운 현재상황을 소신을 갖고 자신 있게 헤쳐 나가자는 내용이었으며, 해마다 늦게라도 비쁜 일정을 쫓아 참석해주시던 지순 선생님께서 해외출장중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는 직접 전달치 못했으나 지면을 통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토의안건 중 하나인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의 건은 지역적으로 떨어진 회원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터라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거쳐 진행키로 했으며, 차기년도 대회 개최의 건은 수원에서 광범위한 형식의 대회를 갖기로 하여 그 위상을 높이지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기타의건으로 각 지역 건축사회에 여성건축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본 협회(대한건축사협회)의 협조공문을 요청토록 하며, 성공사례를 통해 침체된 건축시장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자는 의견은 공감 가는 대목이다.



전북도청사



금산사 미륵전

전통 문화의 거리

대회 이틀째, 아침 일찍 숙소를 나와 이동한 식사장소는 전주 율건축사사무소 김희순 건축사님의 초대로 콩나물국이 시원한 해장국집이었다.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오전 일정을 감안해 든든하게 속을 채운 뒤 전북대 김재식 교수님의 설명과 함께 전통문화의 거리로 이동하여 전주의 대표적 문화재인 풍남문에 도착했다.

전주부성 4대문 가운데 하나로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남대문과 같은 형태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서·북문은 철거되고 남문만이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의 모습은 1978년에 복원하였다.

이어 도착한 전통성당은 한국 최초 순교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세워진 성당이다.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절충한 건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꼽히는 성당이다.

성당 내 경이로운 디테일을 감상한 뒤 태조 이성계의 어진(영정)을 봉정하기 위해 태종 10년(서기 1410년)에 창건된 수려한 주변 경관을 자랑하는 경기전에 도착해 문화유산 해설사를 통해 구수한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전시박물관인 공예관, 공예전문 갤러리인

기획관, 공예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전주공예품 전시관에서는 실생활에 접목시킨 다양한 관광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 가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에는 전통한옥 900여 채를 비롯해서 오목대, 향교 등이 산재해 있어 전통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최대의 한옥 밀집지역으로서 선조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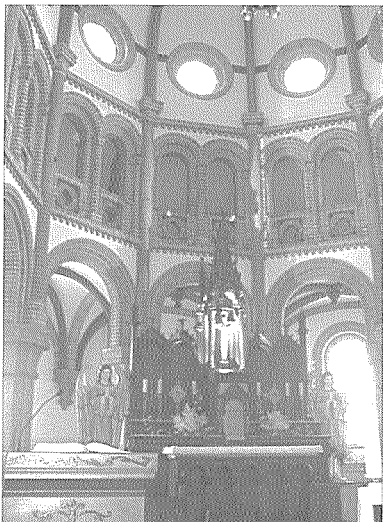
전주 전통문화 센터

도착한 이곳은 김재식 교수님의 작품으로 한국적 현대 조경공간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전통적 한국경관 요소를 수용하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함' 그것인데, 각기 다른 세 개의 독립된 건축물 앞에 각각의 마당을 도입 마당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되 담장의 개구부를 통해 타 공간과의 연계를 도모했으며, 연계의 수단으로 폭포와 수로를 이용, 수평적 마당과 수직적인 담장들의 조화를 이뤄 볼륨 있는 공간구성을 만든 것이다.

만족한 시공이 아니어서 다소 아쉽다는 교수님의 끝말이 작가의 욕심이라기보다 애착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남아 있는 작가 정신이리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쉬운 인사를 건네며 돌아서는 순간 지금껏 돌아본 건축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능선에서 조금 전 현재가

과거가 되어 그 자리에 흔적으로 남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역사가 동기가 되어 역사적 관점으로 건축 행위를 하도록 뚝뚝 남긴 채 짧은 여정을 마쳤다. **■**



전주성당 내부전경



경기전 전경



제10회 정기총회 광경